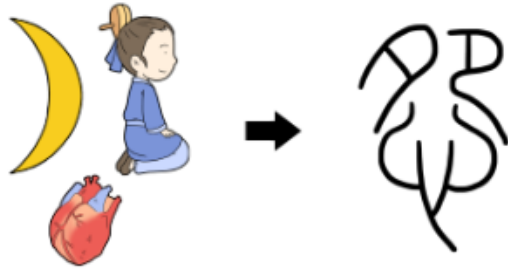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怨

원망할
원(·)

怨자는 '원망하다'나 '미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怨자는 夨(누워 둥굴 원)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夨자는 달이 뜬 어두운 밤에 둥구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누워 둥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怨자는 이렇게 누워 둥군다는 뜻을 가진 夨자에 心자를 결합해 너무도 분하고 원통하여 바닥을 둥굴 정도(夨)의 심정(心)이라 뜻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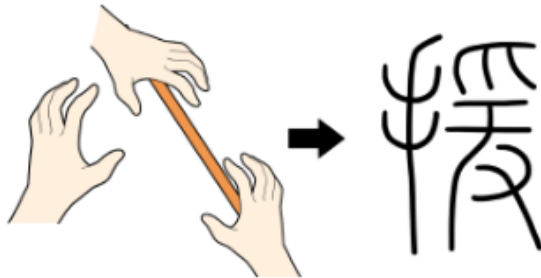
怨

소전

怨

해서

회의문자①



援

도울 원:

援자는 '돕다'나 '당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援자는 手(손 수)자와 爰(이에 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爰자는 막대기나 밧줄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爰자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밧줄을 내밀었다는 의미에서 '돕다'나 '당기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爰자가 '이에'나 '곧'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여기에 手자를 더한 援자가 '돕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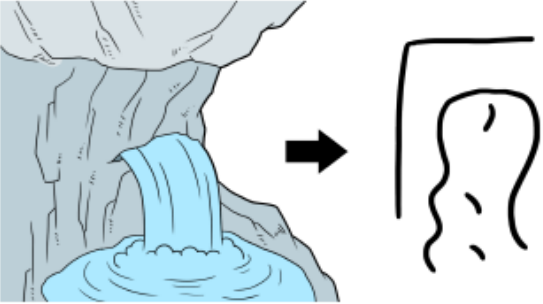
援

소전

援

해서

회의문자①



源

근원 원

源자는 '근원'이나 '원천', '기원'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源자는 水(물 수)자와 原(근원 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原자는 언덕(厂)과 샘(泉)을 함께 그린 것으로 바위틈 사이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본래 근원이라는 뜻은 原자가 먼저 쓰였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는 水자가 더해진 源자가 물줄기가 시작되는 '발원지'를 뜻하게 되었고 原자는 '근원'이라는 뜻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서는 두 글자를 서로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源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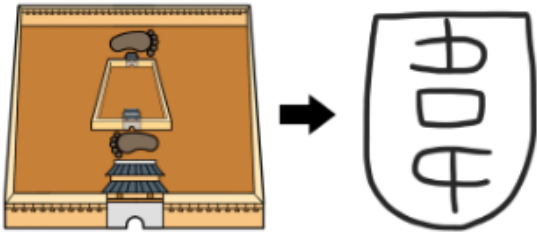
源

소전

源

해서

회의문자①



圍

에워싸
위

圍자는 '둘레'나 '에워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圍자는 韋(가죽 위)자와 囗(에운담 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韋자는 성(城) 주위를 둘러싸고 경비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韋자가 '둘레'나 '에워싸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다름가죽'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囗자를 더한 圍자가 '둘레'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圍

금문

圍

소전

圍

해서

회의문자①



委

말길 위

委자는 '말기다'나 '말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委자는 女(여자 여)자와 禾(벼 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지금의 委자는 禾자가 女자 위에 그려져 있지만, 갑골문에서는 여자가 벼 옆에 앉은 𡥉 모습이었다. 논에 물을 대거나 독을 쌓는 것과 같은 중노동은 주로 남자들이 책임을 졌지만, 농작물 관리는 여자들이 도맡았다고 한다. 委자는 그러한 인식이 반영된 글자로 곡식의 관리는 여자들이 전담한다는 의미에서 '말기다'나 '말게 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𡥉

갑골문

𡥉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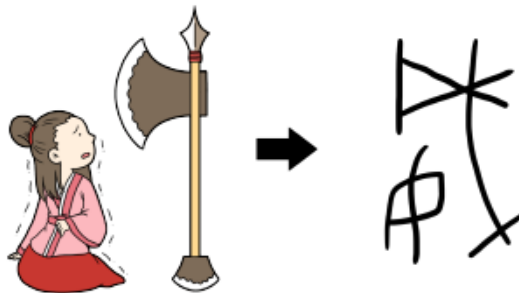
𡥉

소전

委

해서

회의문자①



威

위엄 위

威자는 '위엄'이나 '권위',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威자는 女(여자 여)자와 戍(개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戍자는 도끼날이 달린 고대의 무기를 그린 것이다. 威자는 이렇게 도끼 창을 그린 戍자 안에 女자가 그려져 있다. 이 모습은 마치 도끼 앞에 겁에 질린 여자가 연상되기도 한다. 威자는 본래 '시어머니'를 뜻했던 글자라는 해석이 있다. 威자가 '위엄'이나 '권위'라는 뜻으로 먼저 쓰였는지는 아니면 '시어머니'라는 뜻이 먼저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도끼와 여자를 함께 그려 '위엄'을 뜻하게 된 것만은 확실하다.

威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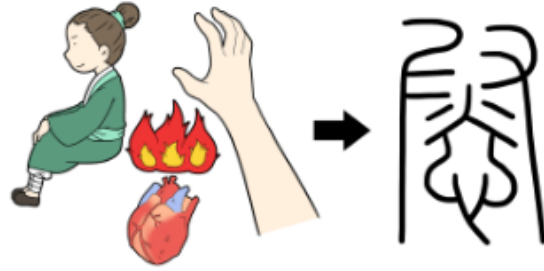
威

소전

威

해서

회의문자①



慰

위로할
위

慰자는 '위로하다'나 '안심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慰자는 尉(벼슬 위)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尉자는 시신을 화장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尉자가 상주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의미에서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尉자가 '벼슬 이름'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여기에 心자를 더한 慰자가 '위로하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慰자는 우리 역사와도 관계가 있는 글자이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실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들이 위안부(慰安婦)란 이름으로 불렸던 아픔이 서려 있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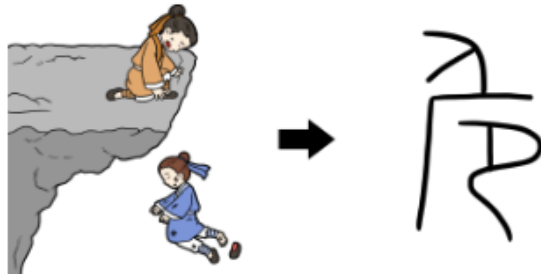
尉

소전

慰

해서

회의문자①



危

위태할
위

危자는 '위태롭다'나 '불안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危자는 '재앙'을 뜻하는 厄(재앙 액)자와 人(사람 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또는 厃(우러러볼 침)자와 厃(병부 절)자가 결합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厄자는 기슭 아래에 사람이 굴러떨어진 모습을 그린 것으로 '재앙'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재앙'을 뜻하는 厄자 위로 사람을 그려 넣은 危자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사람이 '위태롭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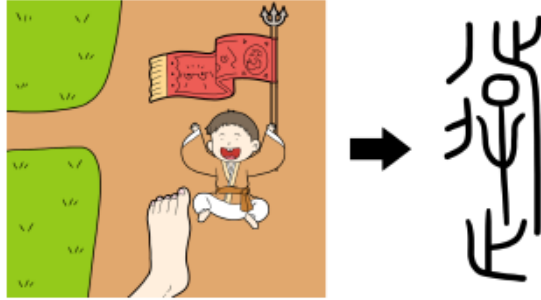
厃

소전

危

해서

회의문자①



遊

놀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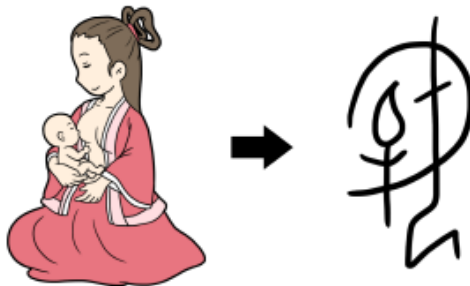
遊자는 '놀다'나 '떠돌다', '여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遊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旂(깃발 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旂자는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을 그린 𣎵(나부낄 언)자와 子(아들 자)자가 결합한 것으로 '깃발'이라는 뜻이 있다. 旂자에는 '놀다'라는 뜻도 있는데, 旂자가 마치 깃발 아래에서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노는 모습으로 그려진 旂자에 辵자를 결합한 遊자는 '길을 떠나 놀다' 즉 '떠돌다'나 '여행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金文

小篆

해서

회의문자①



乳

젖 유

乳자는 '젖'이나 '젖을 먹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乳자는 孚(미쁠 부)자와 乙(새 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孚자는 아이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乳자를 보면 어미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乳(젖)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소전에서는 乳자가 그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孚자가 아이를 잡은 모습이니 乙자는 어미의 가슴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갑골문

金文

小篆

해서